

남원시·경찰청 뭉쳤다…경찰수련원 신축 추진 속도

국회의장 방문해 설득 나선 ‘원팀 행보’…내년 국비 확보 총력
14만 경찰 복지 개선·전북권 시설 노후화로 대체 필요성 부각

남원시가 경찰공무원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과 ‘원팀’으로 국회와의 협력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성호 부시장과 이용욱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은 지난 달 28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경찰수련원이 전국 경찰관들의 심신 치유와 사기 진작에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남원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

는 점을 호소하는 등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사업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자체 단독이 아닌 사업 주체 경찰청(본청) 관계자와 ‘원팀’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시는 향후 현장 대응을 바탕으로 국회·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경찰수련원 신축 추진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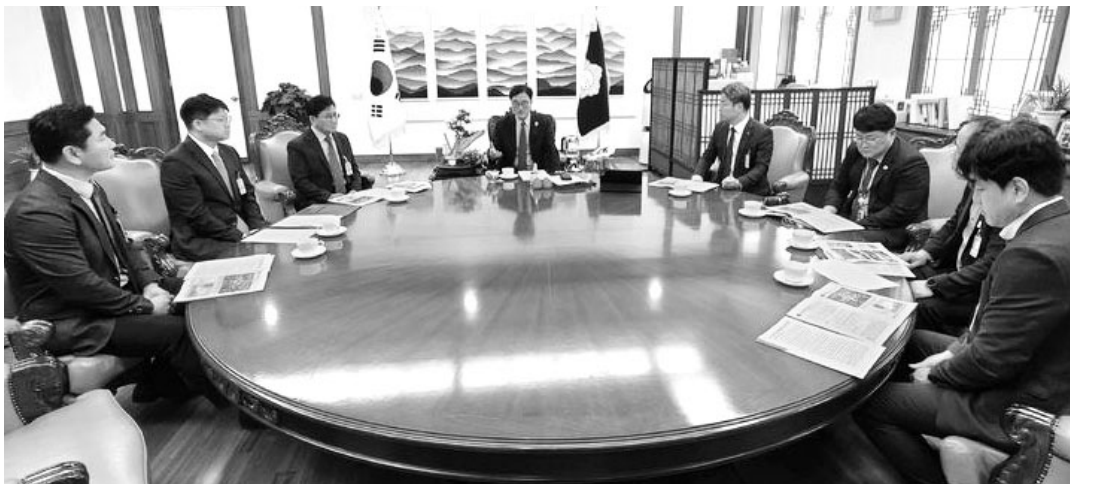
현재 전국에는 8개소 305실 규모의 경찰수련원

이 운영되고 있으나 14만여 명의 경찰 인력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권은 수련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2023년 사업 추진 시기부터 시의 도심 접근성, 자연·문화 인프라 장점을 강조하며 남원경찰수련원 신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은 경찰청 부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찰청 중기사업 계획에도 반영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경찰수련원은 유지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와 함께 폭발적 시너지를 낼 남원의 현안 사업”이라며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이 경찰청 중기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경찰청과 전북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난달 28일 남원시 이성호(왼쪽 다섯 번째) 부시장과 경찰청 이용욱(왼쪽 두번째) 복지정책담당관 등이 국회 우원식 의장을 만난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사업의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고창 상하농원 ‘한국관광의 별’ 선정… 농촌관광 새 모델 입증

‘짓다·놀다·먹다’ 테마…지역 생산·고용·협력 모델 호평

고창의 농촌 테마형 관광지 ‘상하농원’이 ‘2025 한국관광의 별’ 지역상생관광모델 분야에 선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KTO)는 지난 27일 ‘제15회 한국관광의 별’로 상하농원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지를 선정·발표했다.

‘한국관광의 별’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고 있다.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지 중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시상한다. K-관광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여겨지고 있다.

상하농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매일유업이 공동 투자해 2016년 4월 문을 열었다. ‘짓다·놀다·먹다’를 주제로 좋은 먹거리를 짓고 이를 관광 객과 함께 경험하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체험 공방, 유기농 목장, 로컬푸드 기반 식음 시

설, 파머스빌리지 호텔과 클럽핑 등 체류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관광객 체험 과정이 다시 지역 생산자에게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며 농촌관광의 가치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창 주민을 중심으로 한 고용 구조, 지역 농가와와의 안정적 거래 관계, 오랜 기간 지속된 원재료 구매 및 협력 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미래형 농촌관광 모델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수목원 개장, 위케이션 공간 도입, 스마트 농업 기반 체험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며 체험·휴식·업무가 결합된 관광 수요를 창출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 농가 참여 재배·가공 프로그램도 늘려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인근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를 확대해 고창군 전체 관광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상하농원 가을전경. <고창군 제공>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은 상하농원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하농원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건강체조로 어르신 체력 챙긴다

내년 2월 27일까지 ‘싱싱생생 건강교실’…195개 경로당서 운영

남원시가 겨울철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내년 2월 27일까지 읍면동 195개 경로당에서 운영한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과 건강 지원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겨울철에는 주 2회 건강체조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보건전문인력이 치매·우울증 관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기초건강 측정과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는 등 촘촘한 건강상담을 병행 시행한다.

또 겨울철 건강수칙과 한랭질환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한파 특보 발표 시 참여자 안부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 연계를 지원해 어르신 건강 돌봄을 강화한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총 88개소에서 5335회 진행돼 참여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추운 계절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시기지만, 싱싱생생 건강교실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해 건강을 챙기시길 기대하며 시민들의 근력 강화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동학농민혁명 연구 집성…학술지 ‘제5호’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동학농민혁명 전문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5호를 발간했다.

2023년 창간 이후 축적해온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번 호는 지역별 참여자 분석부터 세계기록유산 기반 사료 연구, 혁명 기억의 다층적 해석까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외연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학술지는 매년 두 차례 발간되며, 향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5호에는 특집논문 7편과 일반논문 4편 등 총 11편이 실렸다.

특집논문 1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등록된 혁명 참여자들의 지역별 활동 양상을 경상우도·충청

·전라도 서남부 사례로 나눠 조명했다. 특집논문 2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신규 발굴 자료를 통해 고창 민보군의 거의 명분, 영화당의 결세 저항, 지례 농민군 활동 등을 분석했다.

일반논문은 혁명 기억의 방식, 남잡·호남 중심 연구의 한계 극복, 백산성지 조성 의의, 임실 동학 접주 허선 가계 검토 등 네 편이 실렸다.

수록 논문은 재단 사료아카이브와 학술지 검색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새 자료 기반의 연구 확산을 기대한다”라며 “관련 연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도축장 현대화 사업 착수…축산물 안전성 높인다

전북자치도 공모 선정·도비 3억6000만원 확보…위생 개선 본격화

정읍시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정읍시는 전북자치도의 ‘2026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3억6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역 도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가 오는 2030년까지 매년 도내 소규모 도축장 1개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도축장의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도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과 도축장의 경

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대상이 된 관내 도축장은 ‘산수물’이며 시는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예방설(도축 후 고기를 숙성·냉각하는 시설)의 시설을 개선하고 낡은 냉동기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도축장 시설이 개선되면 위생 관리와 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신뢰도 상승은 도축·가공 물량의 증가로 이어져 매출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북자치도의 ‘2026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따라 시설개선이 추진될 예정인 정읍 ‘산수물’ 도축장. <정읍시 제공>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